



천주교 전주교구

# 전 동 성 당

주임신부: 남 종 기 고 스 마  
보좌신부: 김 건 솔 프란치스코  
수녀: 강도순 레지나  
수녀: 최윤희 글라라  
사목회장: 장은수 요한

55044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전동) 사무실: 284-3222/ 팩스: 282-6232/ 애령회장: 010-8644-6007

www.jeondong.or.kr / e-mail: jdcatholic@daum.net

주일미사	· 토요일: 오후 4시(순례자미사) 오후 6시(학생미사)			전 동 메 아 리
	· 주 일: 오전 6시, 9시, 10시 30분(교중미사), 오후 5시			
평일미사	월 ~ 토: 오전 6시 화 ~ 금: 오전 11시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오전 10시	봉성체	매월 셋째 수요일 오후 2시	
고해성사	미사 전 15분	유아세례	홀수달 둘째 토요일 오후 5시	
예비자 교리반	일요일 오전 9시~10시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마르코 14,22)



△ 그림: www.erzdioezese-wien.at

◎제1독서: 탈출기 24,3-8

◎제2독서: 히브리서 9,11-15

◎복음: 마르코 14,12-16.22-26

◎화답송: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먹히는 사랑”

1. 사랑은 일치와 열망을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서로 입을 맞추고, 때로는 입으로 깨물며, 포옹하는 것은 서로 일치하고 싶은 열망 때문입니다. 완전한 일치는 사랑의 완성이며 사랑이 지향하는 바이지만, 인간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한계로 인해 사랑하되 사랑의 완성을 이를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에게, 그가 나에게 온전히 스며들어 하나가 되는 것은 육체를 지닌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 인간 사랑의 한계와 고통이 있습니다.

2.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과의 온전한 일치를 열망하기에 사랑이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인류와 온전하고 완전한 일치를 이루시고자 하십니다. 그분 안에는 이 일치에 대한 열망이 빛으로 타오릅니다. 이 열망으로 인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는 유한한 이 세상으로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 열망으로 인해 이 세상에 오신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우리의 양식으로 내어 주심으로써 그분을 먹는 우리는 이제 하느님과 온전한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3. 이 세상은 약육강식(弱肉強食)의 세상이라고 합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세계에서는 누군가를 잡아먹는 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먹히는 이가 진정 강한 이입니다. 왜냐하면 먹히는 이는 먹히는 그로 인해 살기 때문입니다.

성체 성혈의 신비는 사랑의 신비이고, 하느님 사랑의 완성이며, 하느님 전능의 온전한 표현입니다. 자신을 양식으로 내어주는 사랑, 먹히는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께서서는 사랑의 열망인 일치를 완성하십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성체성사의 삶: 성체성혈 대축일을 경축하며...

성체성사는 신앙생활의 원천이자 정점입니다. 우리가 오늘 경축하는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성체성사의 신비를 묵상하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1264년 우르바노 4세 교황 때부터 지켜지기 시작해, 15세기 에우제니오 4세 교황에 의해 정식으로 인가됐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성체 축일과 성혈 축일을 따로 기념했습니다. 그러다 1970년부터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로 함께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은 삼위일체 대축일 후 첫 번째 목요일이나 주일에 지냅니다. 교회가 삼위일체 대축일 후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지내는 이유는 성체성사 안에 하느님의 구원 신비 전체가 담겨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이날 성체성사를 통해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돼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현존을 기념하고 묵상합니다. 성체성사로 받아 모시는 성체와 성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게 이끌어 줍니다.

하지만 신자들 중에는 성체와 성혈을 단순한 상징으로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체와 성혈이 몸과 피로 바뀐 기적은 이미 여러 번 일어났고, 이는 성체성사의 신비를 가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처럼 성체성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체성사의 삶을 실천하려면 몸과 마음이 모두 교회의 품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성체성사의 삶은 생명을 나누는 친교와 일치와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몸과 피를 내어 주신 주님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에도 소홀해선 안 될 것입니다.

-----  
-가톨릭 평화방송,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유래와 의미”(2020.06.12)에서 발췌-

**[ 사 제 양 성 후 원 회 비 ]**  
(2021년 5월)

강주연헤레나	김대식요셉	서순자요안나	이복영안젤로	차오순안나
고정자안나	김평기토마스	설진수마리아	이성숙안젤라	최경완젼마
김남숙클라우드아	김한레젼마	심경이마리아	이안젤라	하정금바울라
김대수사도요한	김현정	심데레사	이정재요셉	형차순안나
김문식베드로	김현철안드레아	양경희헤레나	임영자데레사	홍선의프란치스코
김성자젤마나	김희남사라	엄복임엘리사벳	임철종베드로	홍은미유스티나
김숙희베로니카	박순애데레사	오영희데레사	장은수요한	황혜경미카엘라
김순영젼마	박재홍베드로	원수관야고보	장태순소피아	
김순태보나벤투라	박준영수산나	유교순데레사	정남레루시아	
김영원올리바	박춘임루시아	육순자데레사	정덕순데레사	
김유리율리안나	방현옥레지나	윤이순마르타	정명이세실리아	
김일부베드로	방현주리디아	윤희영율리안나	정인덕가브리엘	
김정옥안나	백금레루시아	이경자도미틸라	조금원세라피나	
김정자요안나	백순동데레사	이금이마리아	조순자이사벨라	
김진영마르첼리노	서성자사화데레사	이도연프란치스코	조영순마리아	

송철 옛날국수공장	일송정 (갈비명가)	최복순쌀상회	전주 농약사	하늘해 외 여행사
3대를 이어온 국수명가 <b>송현규(요한)</b> <b>최금호(요안나)</b>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 서로 137-5(남부시장 건너편) ☎284-1908 H.P. 010-8951-2208	갈비탕, 옛날갈비찜, 갈낙전골 명품한우전문 <b>김문식(베드로)</b> <b>심 데레사</b> 완산구청 사거리(중산초방면) ☎223-9393 H.P. 010-3653-7853	쌀, 잡곡, 소금일절 <b>김동주(바오로)</b> <b>장현숙(세레나)</b> 전주시 남부시장내 ☎284-3194 H.P. 010-3675-3194 H.P. 010-8627-3713	농약, 종자, 모종, 농자재, 묘목 <b>황인수(요한)</b> <b>김효순(루치아)</b> 전동성당 건너편 버스정류장 ☎287-4900 H.P. 010-8239-4348	성지순례 해외여행 전세버스  <b>최석재(스테파노)</b> ☎286-9595

동래분식	남문&mail. 남문연구센터	MG남부새마을금고	(유) 쿡뱅크	풍남정
새알팔죽, 팔각국수, 손수제비 남부시장내 30년전통, 30년다문집 <b>양명구(다비드)</b> <b>이정미(세실리아)</b> ☎288-4607 H.P. 010-3672-0186	문구문화, 문구중심, 문구생활  <b>원수관(야고보)</b> <b>심경이(마리아)</b> 전주시 보건소 옆 ☎283-3352	<b>본점(남부시장)</b> ☎283-7611-3 <b>학산지점(평화동)</b> ☎283-7614-5 <b>홍산로지점(효자동)</b> ☎286-7616-7 <b>이사장</b> <b>이경춘(마르첼리노)</b> H.P. 010-3659-1907	<b>그릇대여업체</b> <b>장순문(프란치스코)</b>  e-mail: jsm1605@naver.com H.P. 010-7657-1606 ☎284-1606	전주전통비빔밥 불낙전골, 떡갈비 전문점  <b>박래연, 이현숙</b> 전동성당 후문 H.P. 010-3680-2756 ☎282-8754

# 전 동 계 시 판

●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 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체성사의 신비를 기리는 날입니다.

● 오늘은 제대 꽃 봉헌의 날입니다.

■ **예비신자 연중 모집:** 예비신자 모집에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일정 인원이 모이면, 주일 오전9시 교리반을 시작합니다.

■ **전주 ME 183차 주말 참가 부부 모집:**

\*오늘(주일)까지 사무실 신청

\*일정 및 장소: 6/18(금)~6/20(주일) 평화의 전당

■ **사제의 성화의 날:** 6/11(금) 10:00 평화의 전당

\*당일 본당 11시 미사는 없습니다.

\*6/10(목)까지 사제성화를 위한 9일기도를 바칩니다.

## 《제단체 및 각 가정 단체사진》 제출 협조 요청

코로나19로 인해 회합 및 신부님의 가정방문이 제한되어, 사목상 교우여러분의 사진을 제공받 고자 하오니 협조 바랍니다. → 주임신부님 사목용으로만 사용됩니다.

\*방 법: 핸드폰으로 사진촬영 후, 이름과 사진을 사무장 번호로 전송 (010-2670-3129)

## 가난한 나라를 위한 교황님과 함께하는 ‘백신 나눔 운동’ 참여방법

1.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은 본당 사무실을 통하여 성금을 내시면 되고, 비신자도 참여 가능합니다.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계좌입금: 전북은행 1013-01-3079726 천주교유지재단
2. 형편에 따라 성금 액수는 자유로이 하실 수 있으며, 참고로 두 차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금액은 약 6만원입니다.
3. ‘백신 나눔 운동’ 참여 기간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이 종료되는 올해 11월 27일(대림 제 1 주일 전날)까지입니다.

## ■ 첫순교터 후원회원 현황

첫순교터 후원회원(6월4일 현재)	587 명
후원회원 목 표	10,000 명

## 우리들의 정성(5월24일~5월30일)

주일헌금: 3,772,000    교무금: 4,289,000

김영순(세레나)	200,000
· 감사헌금: 이대희(다니엘)	1,000,000
이병열(미카엘)	300,000

※ 교무금 자동이체 계좌:  
신협 134-001-130673 천주교유지재단

## ★첫순교터 후원회 회원모집★

√ 회원구분:	<input type="checkbox"/> 정회원(월 1만원이상 납부) <input type="checkbox"/> 특별평생회원(일시불 100만원 이상 납부)
√ 납부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납부(사무실) <input type="checkbox"/>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CMS 후원신청서 작성 (계좌번호: 신협 131-019-740164 / 예금주: (재)천주교유지재단)

정창희 정형외과	수진가 약국	가은노인복지센터	Roastery cafe Soul & Design Soul	남 창 당 한 약 방
뼈, 관절 물리치료실 의학박사 전문의 <b>정창희(안셀모)</b> <b>이성숙(안젤라)</b> 전통성당 건너편 ☎284-2926, 288-1625	약사 <b>이현명(사도요한)</b> 약사 <b>신지현(베르베루아)</b> 중앙성당 인근 (구한양예식장) ☎272-8066	주·야간보호,요양시설 내집처럼 내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b>한삼숙(베로니카)</b> <b>김정민(데레사)</b> 대성동 고덕산장 부근 H.P.010-3621-6007 ☎282-9241	디자인과 커피가 공존하는 Soul <b>서승희(클레멘시아)</b> <b>조성취(안 드 레 아)</b> 진버들6길8-10(아츨리) H.P. 010-2747-0989 H.P. 010-3683-0050	전통한약방 제1호 인증 <b>원장 한광수</b> 전통성당 맞은편 한옥마을 입구 H.P. 010-3653-8586 ☎284-8586